앤드류와 리디아 김의 맛있는 선교 이야기 (2018. 01. 20.)

# 남반구•미래•선교•진흥•사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끔직히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나님만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 고아, 나그네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필리핀이나 중국, 동북인도, 이디오피아등은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선교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거의 없고,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선교기관들도 아직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아서 제대로 후원을 받지 못하고 필드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난 16년 동안 남반구로 불리는 지역에서 선교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나라의 저주는 가난이 아니라 의존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하도록,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고 외치며 이들을 도전해 왔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이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35년째 필드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는 중국이나 동북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등지에서 나오는 선교사님들. 어디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는 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깊이 와 닿습니다.**

**그동안은 이분들이 가서 섬길 지역들과 사역들을 개발하는 일에 올인했는데, 이제 부터는 이분들에게 선교사로서 더욱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하고,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열악한 사역지에서 지치고 탈진했어도 넉넉치 않은 후원 때문에 쉴 곳도 없이 일해오신 이분들이 하룻 밤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내어 드리고 싶은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이 올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부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잘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픈 눈빛이 닿아 계신 곳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싶어 저희는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태국의 치앙마이가 이 일을 위해 적합해 보입니다.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중국과 동북인도를 비롯한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님들께서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올 한해에도 주님의 부요하신 은혜를 더욱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